

최근 입주된 수도권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본 규모별 실 구성 요구 분석

A Study on Space Requirement and Planning for Various Size of Apartments, Recently Built in Metropolitan Area

오혜경*
Oh, Hye-Kyung

함민정**
Ham, Min-J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optimum guidelines about apartment rooms by conducting survey among residence whose apartment floor size is between 66-198 m² and whose apartment is less than 3 years old. The effective numbers of survey questionnaire turned in was 226 and the survey analysis has been made by using of SPSS WIN 12.0. The results and conclusion of the studies are as follows; (1) 66~98 m²: The recommended numbers of bedroom is 2 and 3. The size of master bedroom needs to be decreased whereas the size of living room be increased. (2) 99-131 m²: The recommended numbers of bedroom is 3 and 4. The size of master bedroom and master bathroom needs to be decreased whereas the size of living room, 2nd bedroom, kitchen and dining room needs to be increased. (3) 132-164 m²: The recommended numbers of bedroom is 3 and 4. The size of master bedroom and bathroom needs to be decreased whereas the size of dress room, kitchen and dining room, and 2nd bedroom needs to be increased. (4) 165-197m²: The recommended numbers of bedroom is 3 and 4. The size of master bedroom and master bathroom needs to be decreased and the size of dressroom and kitchen /dinning room needs to be increased. (5) 198 m² and above: The recommended numbers of bedroom is 3,4 and 5. The size of dressroom needs to be increased. It is revealed that the number of bedroom doesn't need to be increased as the size of apartment is increased. Larger space is required for the public space for the family and dressroom. And smaller space is required for the master bedroom and master bathroom.

Keywords : Apartment, Plan, Bedroom, Master Bedroom, Dressroom

주요어 : 아파트, 평면, 침실, 안방, 드레스룸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960년대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의 인구집중과 핵가족화로 인한 가구 수의 증가는 주택의 부족난을 초래하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활성화된 아파트는 공급을 대비 엄청난 수요의 폭증과 각종 제도적 제약 등으로 평면의 획일화, 고정화 현상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우리사회는 자녀수 및 가구원수는 감소하고 대신, 높은 교육수준, 다양한 문화의 경험,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아파트에 대한 거주자의 의식과 요구가 상향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경쟁적으로 보다 다양한 평면을 수시로 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아파트 전체의 공원화 및 주민 편의시설의 계획, 현관전실의 제공, 보조주방의 설치, 좁은 면적의 아파트에도 2개의 욕실 설치, 드레스룸의 설치 등이다. 또한 거실과 현관에는 아트월과

우물천장 등을 설치하여 고급화를 시도하였고, 이에 걸맞게 장식장이나 신발장 등의 붙박이 수납가구가 비교적 효율적으로 구비되어 있으며 대리석, 원목, 등의 재료나 부엌시스템, 욕실 위생기기 등도 고급화 하고 있다. 이렇게 각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다양하게 전개되고는 있으나 대부분 단지 전체나 단위평면의 배치, 자재의 고급화 등에 편중되었고 각 공간에서는 외부인에게 보여 지는 주방과 욕실 또는 거실이나 현관에 주력하고 있으며 각 실은 외부인에게 노출되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전략의 뒷전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각 실은 실제적인 사용시간이 가장 길며 많은 개인적인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이므로 보다 주의 깊게 계획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최근 들어 아파트 단위평면은 보다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실도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그러나 그 발전의 속도는 거실 또는 주방이나 욕실에 비해 느리고 폭도 크지 않아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한

*정희원(주저자),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부 주거환경 전공 교수
**정희원(교신저자),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부 주거환경 전공 석사

편 아파트 각 실에 대한 연구 또한 다른 공간에 비해 부족하며 특히 실 요구에 관한 연구는 더 더욱 부족하다. 즉, 침실 연구는 부부침실이나 드레스룸, 또는 아동실 등 각각의 실에 대한 연구가 있을 뿐¹⁾ 이들 실 전체의 거주자 요구를 다룬 연구는 거의 전무 하다. 다만 아파트의 전체 공간을 다루는 중 일부 침실에 관한 부분이 삽입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아파트 규모에 따라 각 실에 대한 거주자들의 실제적인 공간 요구가 어떠한지 규모만을 변수²⁾로 조사하여 분석내용을 제안함으로써 실제적인 계획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결과³⁾를 도출 하는 것이다. 연구의 결과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건설 분야나 실내계획에 관련된 분야에서 아파트의 실 계획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II. 연구의 방법

1. 설문 의 구성

본 연구의 조사도구인 설문지는 먼저, 선행연구⁴⁾에서 각 실을 다룬 내용을 추출하였고<표 1> 그 중 중복되는 부분과 주목성 있는 내용⁵⁾을 정리하여 설문 의 주요 내용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선행연구의 고찰 결과 실에 대한 내용은 각 연구에서 일부분으로만 다루어져 있고 이 또한 각기 다른 연구방법과 연구대상, 분석방법으로 인해 일관성이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들 각기 다른 연구의 내용을 조사하고 이를 통합하여 설문 의 항목을 선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김미경, 신용재(1996), 박소윤 외(2005), 김진환(2001), 오혜경(1994), 이경아 외(2005), 이복희 외(1999), 주서령, 박은영(1999), 황연숙, 오찬욱(1997).
- 2) 본 연구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가족 수나 가족주기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실제는 아파트의 규모가 가장 큰 선택 요건이라는 견해에 따라 규모만을 변수로 선정하였다. 그 근거는 조성희, 박수빈(2000)의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불특정 다수의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보편적 주요요를 추정하여 표준화된 계획으로 이루어져 왔다. 최근에는 이러한 확실적인 계획을 개선하고자 다양화가 모색되고 있는데 거주가구의 주요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가족생활주기, 가족수, 가구주의 직업, 학력, 소득수준 등이다. 이 변인들은 거주자의 주택규모에 따라 두드러진 차이를 보여 불특정다수의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공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집합주택 단위평면 계획에서는 주택규모를 계획의 기준으로 해서 진행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주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족특성, 주거특성 등의 조사는 모두 제외하였다.
- 3) 분석에서도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바로 연구 결과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 4) 2000년 이후 발표된 논문에서 아파트 각 실에 관한 거주자 요구만을 다룬 논문은 없었고 전체 아파트 공간을 다룬 논문 중 실에 관한 내용이 있는 논문만 추출하였다.
- 5) 중복되는 내용 중 가장 많은 항목은 실의 용도, 실의 수, 실 크기 변경이었고 그 다음이 실의 위치 및 변경이었으며 불필요실의 조정이 가장 적었다. 그래도 아파트에서 필요없는 실이 있는지에 관한 의견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판단되어 설문 의 항목에 포함시켰다. 한편 실의 출입문 및 창문 위치는 가구배치에 많은 영향을 주어 공간의 효율성을 좌우함으로 포함시켰다. 따라서 이와 관계가 있는 보유가구에 대한 선행연구를 추가로 선정 하였다.

표 1. 선행연구 분석

연구자	연도	내용
조성희, 박수빈	2000	실의 수, 실의 용도, 불 필요실의 조정,
이연숙 외	2001	실 1, 2, 3 의 보유가구(실의 공간구성)
조성희, 박수빈	2001	실 크기 변경, 실의 수, 실의 용도
박인석, 김진환	2002	실의 위치 및 변경
이종근	2002	실 크기 변경, 실의 용도, 실의 수,
김상희 안주영	2002	실의 위치 및 변경
오찬욱	2003	실 크기 변경.
박수빈 외	2003	실의 용도, 실 크기 변경, 실의 위치 및 변경
박혜선	2003	실 크기 변경, 실의 수
김세진, 외	2003	실 크기 변경, 실의 용도
박수빈 외	2003	실1 크기 변경, 보유가구(실의 공간구성)
최윤정, 김민정	2003	실의 수, 실의 용도,
김수진, 이영수	2004	실 크기 변경, 실의 위치 및 변경
오찬욱 외	2004	실 크기 변경. 실의 수, 실의 위치 및 변경,
방정훈, 오찬욱	2004	실 크기 변경.
김석경, 임미숙	2005	실 크기 변경, 실의 용도, 실의 수,
박수빈 외	2005	실 크기 변경,
이경아 외	2005	실의 용도, 실의 수,
강형구 외	2005	실 1의 보유가구 및 배치(실의 공간구성)
최정원 외	2006	실 크기 변경,
양세화 외	2006	실 크기 변경, 실의 수, 불필요실의 조정

*설문의 주요내용

- (1) 실의 용도: 아파트 규모에 따른 각 실의 용도 및 추가로 필요한 실 조사
- (2) 실의 수: 아파트 규모에 따른 현재 실의 수 및 면적의 변화 없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실의 수 조사
- (3) 실 크기 변경: 아파트 규모에 따른 실 크기 변경(현재의 아파트에서 면적의 변화 없이 크기를 축소하고 싶은 실과 축소한 실 대신 확장하고 싶은 실 조사)
- (4) 불 필요실의 조정: 아파트 규모에 따른 불필요실(현재 아파트의 실 중 필요 없거나 없애고 싶은 실 조사)
- (5) 실 위치 변경: 아파트 규모에 따른 실 위치 변경(현재 아파트에서 면적 변화없이 위치를 바꾸고 싶은 실 조사)
- (6) 실의 출입문 및 창문 위치: 가구배치에 따른 출입문과 창문의 위치(부부침실과 자녀실 선정, 출입문, 창문의 위치와 가구 배치 관계를 4가지 평면으로 분류하여 조사)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조사의 대상은 분양면적 66~198 m² 이상(20~60평 이상)의 서울 및 수도권지역 아파트 중 입주 한지 3년 미만⁶⁾ 이면서 2007년 대한 건설협회 발표 시공능력 10위 이내에 선정된 회사⁷⁾가 건설한 아파트로 한정 하였다. 이는

- 6) 입주 3년 미만 아파트는 부동산114: <http://www.r114.co.kr> 부동산뱅크: <http://www.neonet.co.kr>를 참고 하여 추출 하였다.
- 7) 대한 건설협회 발표 2007년 순위 10위 회사는 (주)대우건설, 삼성물산(주), 지에스건설(주), 현대건설(주), 대림산업(주), (주)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주), 롯데건설(주), 에스케이건설(주), 금호산업(주)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가 변화의 속도와 폭이 가장 클 것이라는 판단과 입주 한지 3년 미만 그리고 순위 10위 안의 회사에서 시공한 아파트가 최신 트렌드를 가장 잘 반영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아파트의 평면은 설문지의 전반적인 답을 고르게 표집하려는 의도에서 특별한 차별화가 적용되지 않은 일반적인 평면⁸⁾으로 한정하였다. 조사는 2007년 5월 14일~6월 30일까지 진행 되었고 서울 강북에서는 동대문구, 강남에서는 강남구,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용인시, 성남시를 선정하였다. 조사는 의도표집(purposive sampling)으로 해당 아파트를 직접 찾아가 주민을 만나 대면하고 부탁⁹⁾하였는데 그 이유는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무작위로 수집하는 것보다 대면 또는 아는 사람의 부탁에 의한 답변이 훨씬 양질의 답변이 나올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60평대 이상은 그 분포 숫자가 적고 주민들이 설문제 폐쇄적이라는 한계가 있어 이 방법이 유효 하었다고 판단된다. 설문은 총 250부를 배부하여 232부가 회수되었고 그 중 226부가 유효자료였다. 분석은 SPSS WIN 1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빈도, 백분율, 평균 등의 기술통계를 활용하였다.

III. 연구결과의 분석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아파트 규모

조사대상자의 거주지역은 서울 동대문구와 강남구, 경기도 용인시와 성남시로 총 226가구였다. 아파트 규모는 99~131 m²가 가장 많았고 66~98 m²가 가장 적었다<표 2>.

표 2. 조사대상자의 아파트 규모 (N=226)

지역	20평대		30평대		40평대		50평대		60평 이상		전체	
	n	%	n	%	n	%	n	%	n	%		
서울 동대문구	15	27.3	25	45.5	11	20.0	4	7.2	0	.0	55	100
서울 강남구	5	6.1	24	29.3	14	17.1	19	23.1	20	24.4	82	100
용인시, 성남시	9	10.1	25	28.2	18	20.2	19	21.3	18	20.2	89	100
계	29	12.8	74	32.7	43	19.1	42	18.6	38	16.8	226	100

*여기에서 20평대=66~98 m², 30평대=99~131 m², 40평대=132~164 m², 50평대=165~197 m², 60평=198 m²를 말한다. 이는 앞으로 제시되는 표에서도 마찬가지로 밝혀둔다.

2. 실의 용도

아파트의 각 실은 규모별로 대부분 그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거주자는 각 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용도를 지정하게 된다. 여기에서 현재 조사대상 아파트의 각 실

표 3. 각 실의 용도

용도	실1		실2		실3		실4		실5	
	n	%	n	%	n	%	n	%	n	%
부부침실	210	92.9	11	4.9	6	2.7	1	0.8	1	2.5
자녀실	5	2.2	182	80.5	157	70.1	35	26.9	4	10.0
노인실	3	1.3	6	2.7	8	3.6	3	2.3	1	2.5
서재	3	1.3	16	7.1	27	12.1	45	34.6	12	30.0
비디오실	1	.4	0	.0	1	.4	2	1.5	4	10.0
운동실	0	.0	2	.9	0	.0	5	3.9	1	2.5
드레스룸	0	.0	6	2.7	17	7.59	23	17.7	15	37.5
기타	4	1.8	3	1.3	8	3.57	16	12.3	2	5.0
계	226	100	226	100	224	100	130	100	40	100

*여기에서 실 1, 2, 3, 4, 5는 거주자가 자신의 아파트 각 실에서 크기가 큰 순서대로 정한 실의 명칭이다.

은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조사 하였다<표 3>. 그 결과, 가장 큰 규모의 실1은 거의 부부침실로, 실2는 대부분 자녀실과 그 외에 서재로의 사용이 약간 있었다. 실3도 자녀실이 가장 많았으나 서재나 드레스룸으로도, 실4는 서재, 자녀실, 드레스룸의 순으로, 실5는 드레스룸, 서재의 순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한편 아파트 규모에 따라 각 실의 용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면<표 4> 규모에 상관없이 실1은 부부침실로, 실2는 대부분 자녀실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실2의 경우 66~98 m²(20평대)에서 자녀실로의 사용은 69%에 그치고 서재나 드레스룸으로 사용하는 가구가 각각 10%였으며 실3의 자녀실 사용은 40%에 그치는 반면 드레스룸으로의 사용이 26%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99~131 m²(30평형대)에서는 실이 3개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실2, 실3이 80% 이상 자녀실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실이 4개 있는 가구가 8가구였고 이중 실4를 자녀실로 사용하는 가구는 40%이고 나머지는 서재나 드레스룸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 또한 거주자의 용도를 고려한 계획이 요구된다. 한편 132~164 m²(40평대)에서도 실2는 대부분 자녀실로, 실3은 자녀실 외에 서재나 드레스룸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실4 또한 마찬가지로 실3, 실4의 용도를 명확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다. 165~197 m²(50평대) 또한 실2, 실3은 자녀실로의 사용이 많았으나 실3의 서재 사용이 돋보이고 실4 또한 서재로의 사용이 많았다. 그러나 실5는 드레스룸으로의 사용이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198 m²(60평) 이상에서도 실2, 실3의 용도는 자녀실이었고 실4는 서재로, 실5는 서재와 드레스룸으로의 사용이 많았다.

이를 종합하면 대부분 규모가 가장 큰 실1은 부부침실로 사용되고 그 다음 크기의 실들은 자녀의 수에 따라 자녀실로 활용되며 남은 실이 있을 경우 서재, 드레스룸의 순이었다. 여기에서 20% 이상(실제로는 26% 이상이었음) 서재로 사용되는 실을 면적대로 보면 99~131 m²(30평형대)와 132~164 m²(40평대)에서는 실4를, 165~197 m²(50평대)와 198 m²(60평) 이상에서는 실4와 실5였다. 또한 20%

8) 본 연구에서 일반적인 평면이란 타워형이 아닌 판상형이면서 차별화 (부부침실 후면배치, 주방/식당 전면배치 등)를 시도하지 않은 아파트를 말한다.

9) 아파트를 찾아가 부녀회장 또는 주민을 만나 취지를 설명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증명함으로써 그 주민이 다른 주민을 소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표 4. 아파트 규모에 따른 각 실의 용도

규모	실2						규모	실3					
	자녀실		서재		드레스룸			자녀실		서재		드레스룸	
	n	%	n	%	n	%		n	%	n	%	n	%
20평대 (N=29)	20	69.0	3	10.3	3	10.3	20평대 (N=27)	11	40.7	4	14.8	7	25.9
30평대 (N=65)	56	86.2	3	4.6	1	1.5	30평대 (N=65)	54	83.1	2	3.1	3	4.6
40평대 (N=46)	36	78.3	5	10.9	2	4.3	40평대 (N=46)	31	67.4	6	13.0	5	10.9
50평대 (N=48)	38	79.2	4	8.3	0	.0	50평대 (N=48)	34	70.8	10	20.8	1	2.1
60평대 (N=38)	32	84.2	1	2.6	0	.0	60평대 (N=38)	27	71.1	5	13.2	1	2.6
계 (N=226)	182	80.5	16	7.1	6	2.7	계 (N=224)	157	70.1	27	12.1	17	7.59
규모	실4						규모	실5					
	자녀실		서재		드레스룸			자녀실		서재		드레스룸	
	n	%	n	%	n	%		n	%	n	%	n	%
20평대 (N=0)	0	.0	0	.0	0	.0	20평대 (N=0)	0	.0	0	.0	0	.0
30평대 (N=15)	6	40.0	4	26.7	3	20.0	30평대 (N=0)	0	0	0	0	0	0
40평대 (N=44)	14	31.8	13	29.5	8	18.2	40평대 (N=1)	0	0	0	0	0	0
50평대 (N=39)	11	28.2	15	38.5	5	12.8	50평대 (N=17)	2	11.8	5	29.4	6	35.3
60평대 (N=32)	4	12.5	13	40.6	7	21.9	60평대 (N=22)	2	9.1	7	41.2	9	40.9
계 (N=130)	35	26.9	45	34.6	23	17.7	계 (N=40)	4	10.0	12	30.0	15	37.5

*실1은 거의 대부분 부부침실로 사용하고 있어 제외하였고 실2~실5 중 각 규모별로 분포 10%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실인 자녀실, 서재, 드레스룸만을 발췌하였다.

이상 드레스룸으로 사용되는 실을 보면 66~98 m²(20평대)에서 실3을, 99~131 m²(30평대)는 실4를, 132~164 m²(40평대)에서도 실4이긴 했으나 20% 이하(19%)였으며 165~197 m²(50평대)에서는 실5를, 198 m²(60평) 이상에서는 실4와 실5였다. 서재는 특별한 시설이나 붙박이 가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공간이므로 일반실이라 보아도 무방하지만 드레스룸은 부부침실 또는 개인실에 바로 붙어있어야 효율적이며 붙박이 옷장이나 수납장이 미리 계획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 대부분 부부침실에 드레스룸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면적대에 따라 실2부터 실5까지를 또 하나의 드레스룸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들은 부부침실에서 떨어져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부부침실에 붙어있는 드레스룸의 적정 크기 또는 큰 면적대(165 m²: 50평 이상)에서 또 하나의 드레스룸을 마련해 준다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3. 실의 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실의 수를 조사한 결과, 66~98 m²(20평대)와 99~131 m²(30평대)에서는 주로 3

표 5. 아파트 규모에 따른 실의 수

규모	실의 수		2개		3개		4개		5개		전체	
	n	%	n	%	n	%	n	%	n	%	n	%
	20평대	2	6.9	27	93.1	0	0	0	0	29	100	
30평대	0	0	66	89.2	8	10.8	0	0	74	100		
40평대	0	0	1	2.3	42	97.7	0	0	43	100		
50평대	0	0	0	0	32	76.2	10	23.8	42	100		
60평 이상	0	0	0	0	8	21.1	30	78.9	38	100		
계	2	0.9	94	41.6	90	39.8	40	17.7	226	100		

표 6. 아파트 규모에 따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실의 수

규모	실의 수		2개		3개		4개		5개		전체	
	n	%	n	%	n	%	n	%	n	%	n	%
	20평대	12	41.4	16	55.2	1	3.4	0	.0	29	100	
30평대	5	6.8	55	74.3	14	18.9	0	0	74	100		
40평대	0	0	7	16.3	35	81.4	1	2.3	43	100		
50평대	0	.0	13	31	26	61.9	3	7.1	42	100		
60평 이상	0	.0	9	23.7	24	63.2	5	13.2	38	100		
계	17	7.5	100	44.2	100	44.2	9	4.0	226	100		

개, 132~164 m²(40평형대)에서는 4개가 주였고 165~197 m²(50평대) 이상에서는 4개와 5개가 많았다<표 5>. 그러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면적의 변화 없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실의 수는 어떠한지 알아보았더니 현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며, 3개와 4개가 동일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고, 5개와 2개는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3개나 4개가 이상적 실의 개수라 할 수 있다.

이를 아파트 규모별로 보면 66~98 m²(20평대)와 99~131 m²(30평대)는 3개의 실을, 132~164 m²(40평대), 165~197 m²(50평대), 198 m²(60평) 이상은 모두 4개를 이상적 실의 개수라고 여기고 있었다<표 6>. 아파트의 규모가 클수록 실의 개수가 더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아파트의 규모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많은 침실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분양한 아파트는 대부분 66~98 m²(20평대)는 2~3개, 99~131 m²(30평대)는 3~4개, 132~164 m²(40평대)는 4개, 165~197 m²(50평대)는 4~5개, 198 m²(60평) 이상은 5개로 거의 공식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해 아파트의 실 개수를 제시 해 보면 작은 규모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어 66~98 m²(20평대)에서는 실 3개를 우선적으로 하고 실 2개도 상당수 고려해야 하며(약 40%), 99~131 m²(30평대)는 3개를 우선적으로 하고 4개도 고려(약 20%)해야 한다. 그러나 큰 규모에서는 현재 공급되는 아파트 실의 개수와 큰 차이가 있었다. 즉, 132~164 m²(40평대)는 4개를 우선적으로 하고 3개도 고려(약 15%)해야 할 것이고 165~197 m²(50평대) 또한 4개를 우선적으로 하되 3개도 고려하는데 오히려 40평대보다 50평대에서 실 3개의 요구가 더 높았으므로(약 30%) 본 연구에 의한다면 165~197 m²(50평대)의

평면을 계획 할 시 약 30%는 실 3개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60평 이상에서도 실 4개의 요구가 가장 많으나 실 3개의 요구도 약 25%정도 나타났고 실 5개의 요구는 약 15%에 머물고 있어 확실히 아파트의 면적이 크다고 실 수가 많아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단, 66~98 m²(20평대)에서 실이 2개, 132~198 m²(40, 50평대와 60평대) 이상에서 실이 3개 주어질 때 부부침실이나 또 다른 실에도 작은 실 크기의 드레스룸이 함께 제공 되어야 할 것이다.

4. 실 크기 변경

현재 조사대상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각 실 크기의 평균¹⁰⁾은 <표 7>과 같다.

즉, 실1은 12.8~21.3 m², 실2는 8.7~16.1 m², 실3은 7.9~14.9 m², 실4는 9.3~13.4 m², 실5는 10.1~14.0 m²까지 분포 되었다. 한편 거실은 15.8~42.2 m²까지, 주방/식당은 8.9~26.3 m²까지 분포 되어 있었다. 이를 살펴보면 각 면적대에서 실의 크기는 실1부터 점점 작아져 실5에까지 이르며 전체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실의 크기도 거의 비례하여 늘어나고 있고 예외는 없었다.

표 7. 아파트 규모에 따른 각 실의 면적 평균(m²)

실 규모	실1	실2	실3	실4	실5	거실	주방/식당
20평대	12.8	8.7	7.9	-	-	15.8	8.9
30평대	15.3	9.6	9.0	9.3	-	22.8	13.3
40평대	15.7	11.7	10.5	10.2	-	28.3	16.5
50평대	19.1	13.6	13.0	11.6	10.1	36.2	20.0
60평 이상	21.3	16.1	14.9	13.4	14.0	42.2	26.3

여기에서 거주자들에게 현재 사는 아파트에서 전체 면적의 변화 없이 크기를 축소하고 싶은 실이 있다면 어디인지, 그리고 축소된 실 대신 확장하고 싶은 실은 어디인지를 조사하였고 응답 중 아파트 규모별로 10% 이상이 속해있는 주목성 있는 자료만을 발췌하여 정리한 결과는 <표 8, 9>와 같다.

먼저 축소하고 싶은 실은 ‘축소하고자 하는 실이 없다’가 19.5%로 약 4/5는 현재 주어진 실의 축소를 요구하고 있었으며 그 중 실1(부부침실)의 축소가 모든 면적대에서 가장 높았고, 부부욕실, 거실의 순이었다. 실1의 축소 요구가 가장 높은 면적대는 66~98 m²(20평대)였고 다음은 132~164 m²(40평대)였다.

한편 축소된 실 대신 확장하고자 하는 실은 거실, 드레스룸, 실2, 주방/식당의 순이었다. 이를 면적별로 보면 실1의 축소 요구가 두드러졌던 66~98 m²(20평대)에서는 거실의 확장 요구 또한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여기에서 실1의 평균 면적은 거의 최소치수 (12.8 m²: 3.9평)임에도 이

표 8. 아파트 규모에 따른 실 크기 변경 요구(축소하고 싶은 공간)

규모	변경 실 크기 고수		실1 (부부침실)		부부욕실		거실	
	n	%	n	%	n	%	n	%
20평대 N=29	5	17.2	11	37.9	2	6.9	0	.0
30평대 N=74	8	10.8	21	28.4	10	13.5	6	8.1
40평대 N=43	9	20.9	13	30.2	9	20.9	6	14.0
50평대 N=42	12	28.6	11	26.2	7	16.7	5	11.9
60평 이상 N=38	10	26.3	11	28.9	4	10.5	4	10.5
계 N=226	44	19.5	67	29.6	32	14.2	21	9.3

표 9. 아파트 규모에 따른 실 크기 변경 요구(확장하고 싶은 공간)

규모	변경 거실		주방/식당		실2		드레스룸	
	n	%	n	%	n	%	n	%
20평대 N=29	15	51.7	2	6.9	2	6.9	0	.0
30평대 N=74	16	21.6	7	9.5	15	20.3	6	8.1
40평대 N=43	6	13.9	6	14.0	5	11.6	8	18.6
50평대 N=42	6	14.3	10	23.8	5	11.9	14	33.3
60평 이상 N=38	5	13.2	2	5.3	3	7.9	12	31.6
계 N=266	48	18.0	27	10.2	30	11.3	40	15.1

를 축소하고 거실을 확장하고자 하는 요구는 확실히 제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99~131 m²(30평대)에서는 거실과 실2가 20% 약간 넘을 정도로 비슷하게 높았고 132~164 m²(40평대)에서는 드레스룸의 확장 요구가 많았으나 19%였다. 반면 165~197 m²(50평대)는 드레스룸과 주방/식당으로 요구가 쏠리고 있었고 198 m²(60평)대 이상은 다른 곳보다 특히 드레스룸의 확장을 요구하였다.

이상과 같이 실의 크기에 관한 거주자 요구를 살펴본 것으로 실의 크기는 실의 용도와도 관계가 있다고 보아 이들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66~98 m²(20평대)는 실1의 크기를 축소하고 거실의 확장을 제안하며 <표 3>에 의해 건설 물량의 26% 정도는 실3의 크기보다 조금 작은 정도의 드레스룸을 부부침실에 붙인 평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99~131 m²(30평대)는 부부침실과 부부욕실을 축소하고 거실과 실2의 확장을 제안한다. 특히 실2의 경우 평균 면적이 9.6 m²: 2.9평으로 이를 자녀실로 쓴다면 침대와 책상, 책장을 배치하고 나면 여유가 거의 없는 공간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실이 4개 있는 경우 실4의 드레스룸 용도가 20% 정도 있었는데 <표 3> 따라서 건설 물량의 20% 정도는 실4의 크기보다 조금 작은 정도의 드레스룸을 부부침실에 붙인 평면이 필요하다.

한편 132~198 m²(40, 50, 60평대)에서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거실의 축소와 확장요구가 함께 비슷한 비율로 있어 이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 면적대에서는 모두 부부침실과 부부욕실을 축소하고 드레스룸을 우선적으로 확장해야 할 것이다. 132~164 m²(40평대)에서는 실4의 드레스룸 용도가 19%로 이를 건설물량에 반영하고, 165~197 m²(50대)는 실5의 드레스룸 용도가 35%이므로 이를 반영하면 될 것이다. 여기

10) 조사대상 아파트의 규모별 각 실 면적의 평균을 산출한 결과임.

에서는 이외에도 주방/식당의 확장 요구가 24% 정도 있어 이도 반영해야 할 것이며, 198 m²(60평) 이상은 단연코 확장된 드레스룸을 건설 물량의 32%정도 확보해야 한다.

여기에서 실1(부부침실)에 드레스룸이 설치되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총 163가구) 크기에 대한 요구를 알아보았더니<표 10> 만족하지 않는 거주자가 61%였다. 이들은 드레스룸의 크기가 작아 37%는 현재보다 조금 더 크게, 25%는 훨씬 더 큰 드레스룸을 요구하였다. 이중 66~98 m²(20평대), 132~164 m²(40평대), 198 m²(60평)대 이상은 ‘조금 더 크게’와 ‘훨씬 더 크게’가 비슷하였고 99~131 m²(30평대)와 165~197 m²(50평대)는 ‘조금 더 크게’가 우세하였다. 여기에서 ‘조금 더’라는 크기와 ‘훨씬 더’라는 크기의 범위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으나 ‘훨씬 더’라는 크기는 부부가 자신들의 옷이나 그 외의 용품들을 보관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크기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 여기까지는 조사 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표 10. 아파트 규모에 따른 드레스룸 크기 만족도 조사

변경	현크기 만족		조금더 크게		훨씬더 크게		기타		전체	
	n	%	n	%	n	%	n	%	n	%
규모										
20평대	4	26.7	5	33.3	4	26.7	2	13.3	15	100
30평대	13	36.1	16	44.4	6	16.7	1	2.8	36	100
40평대	15	36.6	12	29.3	13	31.7	1	2.4	41	100
50평대	13	35.1	16	43.2	8	21.6	0	.0	37	100
60평 이상	13	38.2	11	32.4	9	26.5	1	2.9	34	100
계	58	35.6	60	36.8	40	24.5	5	3.1	163	100

5. 불 필요실의 조정

본 연구에서는 실 크기에 대한 요구를 조사함과 더불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실 중 필요 없거나 없애고 싶은 공간이 있다면 어디인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59.7%가 ‘현재 주어진 실을 그대로 고수 하겠다’고 하였고 나머지 거주자는 조정하고 싶다고 하였다. 조정하겠다는 응답 중 아파트 규모별로 10% 이상의 주목성 있는 자료만을 발췌하여 정리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이를 보면 66~98 m²(20평대)에서는 실3이, 99~131 m²(30평대)와 132~164 m²(40평대)에서는 실4가, 165~197 m²(50평대)에서는 실4와 실5가, 198 m²(60평) 이상에서는 실5가 월

표 11. 아파트 규모에 따른 실 조정 요구 (필요 없는 실)

요구	실 고수		실3		실4		실5	
	n	%	n	%	n	%	n	%
규모								
20평대 N=29	26	89.7	3	10.3	0	.0	0	.0
30평대 N=74	37	50.0	6	8.1	5	6.7	0	.0
40평대 N=43	30	70.0	1	2.3	9	20.9	1	2.3
50평대 N=42	21	50.0	1	2.4	7	16.7	7	16.7
60평 이상 N=38	18	47.4	0	.0	7	18.4	11	28.9
계 N=226	135	59.7	11	4.8	28	12.3	25	11.1

등 많으나 실4도 상당수 필요 없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각 규모별로 제일 작은 크기의 방이 필요 없거나 없애고 싶은 공간이라는 결론이 나오며 165~197 m²(50평대)나 198 m²(60평) 이상에서는 제일 작은 방과 그 다음 방도 없애고 싶다고 하여 165 m²(50평) 이상 거주자들의 상당수는 실 3개만으로도 별 문제 없다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는 <표 5>의 ‘아파트 규모에 따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실의 수’에서 나타난 결과와 연관되어 있음으로 ‘3. 실의 수’에서 제안된 아파트 실의 수를 다시 한 번 강조 한다.

6. 실 위치 변경

현재 조사대상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평면은 연구방법에서 제시된 대로 일반적 평면이었고 따라서 타워형이 아닌 판상형이면서 부부침실 후면 배치나 주방/식당 전면 배치 등을 시도하지 않은 평면이었다.

거주자들에게 현재 사는 아파트에서 전체 면적의 변화 없이 실의 위치를 바꾸고 싶은 곳이 있다면 어디인지를 조사해 본 결과<표 12> ‘현재 위치를 그대로 고수 하겠다’는 의견이 99~131 m²(30평대)의 31%를 제외하면 모든 면적대에서 65% 이상 고수한다고 하여 30평대의 요구가 가장 강력하였다.

표 12. 아파트 규모에 따른 실 위치 변경 요구

변경	부부침실 ↔ 자녀실		주방/식당 ↔ 부부침실		주방/식당 ↔ 자녀실		현위치 고수		전체	
	n	%	n	%	n	%	n	%	n	%
규모										
20평대	2	6.9	3	10.3	3	10.3	21	72.4	29	100
30평대	22	29.7	11	14.9	18	24.3	23	31.1	74	100
40평대	5	11.6	2	4.7	7	16.3	29	67.4	43	100
50평대	6	14.3	2	4.8	6	14.3	28	66.7	42	100
60평 이상	4	10.5	1	2.6	7	18.4	26	68.4	38	100
계	39	17.3	19	8.4	41	18.1	127	56.2	226	100

한편 변경 요구의 내용은 아파트 전면에 위치한 부부침실과 후면에 위치한 자녀실을 바꾸고 싶다는 의견과 주방/식당과 자녀실의 위치를 바꾸고 싶다는 의견이 유사하게 상당수 있었다. 그 중 99~131 m²(30평대)에서 부부침실과 자녀실을 바꾸고자 하는 요구가 가장 높았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99~131 m²(30평대)에서는 약 30% 정도 부부침실 후면배치와 자녀실 전면배치, 그리고 약 25% 정도 주방/식당과 자녀실의 위치를 바꾼 평면을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판단된다.

7. 실의 출입문 및 창문 위치

실의 효율성은 그 실의 출입문 위치나 창문의 위치 등에 의해 좌우된다. 특히 규모가 작은 아파트에서는 실의 크기가 한정되고 따라서 이들의 구성에 따라 가구배치가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침실과 자녀실을 선정하여 출입문,

표 13. 부부침실의 문과 창문 위치 및 가구배치

분류	1	2
부부 침실		
	문과 창문 마주보며 수납장이 문 뒤 벽면 전체 위치	문과 창문 마주보며 수납장 침대 맞은편 벽면 위치
	3	4
	문과 창문 마주보며 침대가 문에서 멀리 위치, 수납장 크기 작음	문과 창문 'ㄱ'자, 수납장이 침대 맞은편 벽면에 위치, 문과 침대가 가까움

창문의 위치와 일반적 거주자가 소유한 가구¹¹⁾의 배치 관계를 크게 4가지 평면으로 분류하고 조사하였다<표 13>.

먼저 부부침실에서 분류1은 출입문과 창문이 마주보며 문을 열었을 때 출입문과 침대의 위치가 대각선이 되고 수납장이 출입문 뒤에 위치하면서 벽면 전체가 수납장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출입문이 벽의 중간에서 열린다는 단점이 있다. 분류2는 출입문과 창문이 마주보고 문을 열었을 때 수납장이 대각선에 위치하며 벽면 전체가 될 수 있으나 침대의 위치가 출입문과 가깝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분류3은 출입문과 창문이 마주보며 침대의 위치가 출입문과 멀다는 장점이 있으나 수납장이 벽면 전체에 위치하지 못하여 크기가 작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분류4는 출입문과 창문이 마주보지 않고 'ㄱ'자로 위치하며 수납장은 벽면 전체에 위치하지만 침대의 위치가 출입문과 매우 가깝다는 단점이 있다. 조사 결과 분류3, 분류1, 분류2의 순이었으나 비율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표 14>.

표 14. 아파트 규모에 따른 부부침실의 배치 요구

규모	분류1		분류2		분류3		분류4		전체	
	n	%	n	%	n	%	n	%	n	%
20평대	7	24.1	7	24.1	11	37.9	4	13.8	29	100
30평대	10	13.5	22	29.7	31	41.9	11	14.9	74	100
40평대	16	37.2	13	30.2	10	23.3	4	9.3	43	100
50평대	22	52.4	12	28.6	7	16.7	1	2.4	42	100
60평 이상	13	34.2	10	26.3	12	31.6	3	7.9	38	100
계	68	30.1	64	28.3	71	31.4	23	10.2	226	100

11)*부부침실 보유가구: 장롱, 화장대, 침대, 보조장(이연숙 외, 2001) 침대, 장롱 또는 불박이장, TV, 화장대(박수빈 외, 2003) 장롱, 침대, 옷장용 서랍, TV(강형구 외, 2005) 아 중 비교적 큰 규모의 가구인 침대와 장롱 또는 불박이장을 중심으로 하였다.

*자녀실 보유가구: 침대, 책상 책장 장롱(이연숙 외, 2001)

표 15. 자녀실의 문과 창문 위치 및 가구배치

분류	1	2
자녀실		
	문과 창문 마주보며 책상 옷장 문뒤 일렬배치	문과 창문 마주보며, 침대와 책상 창 쪽 배치
	3	4
	문과 창문이 마주보며, 옷장과 침대 창 쪽 배치	문과 창문 'ㄱ'자, 책상과 옷장 문과 마주보게 배치

이를 종합해 보면 거주자들은 출입문과 창문의 'ㄱ'자 배치보다는 마주보는 배치와 출입문이 침대에서 가장 먼 쪽에 위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편 벽면 전체를 수납장화 하여 가능한 한 수납의 공간을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요구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아파트 평면 개발 시 부부침실은 거주자들이 필수적으로 갖추는 가구인 침대와 장롱의 배치를 먼저 고려한 다음 문과 창문의 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음, 자녀실도 출입문과 창문, 가구배치를 크게 4가지 그림으로 표현하고 조사하였다<표 15>.

조사 결과, 분류2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분류1, 분류3, 분류4의 순이었다<표 16>. 여기에서 분류 2는 출입문과 창문이 마주보고 침대와 책상은 창문 양쪽 벽면에 위치하며 수납장이 출입문 가까이 위치하는 구성이다. 한편 분류1은 출입문과 창문이 마주보고 침대와 책상은 창문 양쪽 벽면에 위치하는 것은 분류2와 같으나 수납장이 출입문 뒤에 위치한다는 것이 다르다

이를 종합해 보면 거주자들은 출입문과 창문이 마주보고 침대와 책상은 창문 양쪽 벽면에, 그리고 침대는 출입문에서 가장 먼 쪽에 배치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평면 개발 시 자녀실은 거주자들이 필수적으로 갖추는 가구인 침대와 책상, 수납장의 배치를 먼

표 16. 아파트 규모에 따른 자녀실의 배치 요구

규모	분류1		분류2		분류3		분류4		전체	
	n	%	n	%	n	%	n	%	n	%
20평대	8	27.6	12	41.4	6	20.7	3	10.3	29	100
30평대	7	9.5	31	41.9	23	31.1	13	17.6	74	100
40평대	15	34.9	19	44.2	7	16.3	2	4.7	43	100
50평대	14	33.3	20	47.6	5	11.9	3	7.1	42	100
60평 이상	9	23.7	24	63.2	4	10.5	1	2.6	38	100
계	53	23.5	106	46.9	45	19.9	22	9.7	226	100

*여기에서 20평대=66~98 m², 30평대=99~131 m², 40평대=132~164 m², 50평대=165~197 m², 60평=198 m²를 말한다.

저 고려하고 다음, 출입문과 창문의 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I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아파트 각 실에 대한 거주자의 요구를 규모별로 파악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66~98 m²(20평대): 실의 수는 3개를 우선적으로 하되 실 2개도 상당수(약 40% 정도) 고려해야 한다. 실의 크기는 현재의 부부침실을 축소하고 무엇보다 거실을 확장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으나 실제 부부침실은 최소한의 면적이어서 실이 3개일 경우 그 해결방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실 3을 드레스룸으로 쓰고 있는 약 26%의 거주자와 실을 2개 원하는 거주자의 경우 위의 요구는 물론 부부침실에 명목상이 아닌, 수납장이 효율적으로 계획된 적절한 크기의 드레스룸을 함께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99~131 m²(30평대): 실의 수는 3개를 우선적으로 하되 실 4개(약 20% 정도)도 고려해야 한다. 실의 크기는 현재의 부부침실과 부부욕실을 축소하고 거실, 실2를 확장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으나 이 또한 최소한의 면적이어서 그 해결책이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부부침실 15.3 m²: 4.6평을 4평으로 축소하고 부부욕실도 축소하여 그 면적을 약간씩 배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또한 드레스룸이 있다면 이를 없애고 부부침실의 한 벽면을 붙박이장으로 하면서 남는 면적을 조금 더 배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 4개가 있으면 실 당 면적이 줄어들므로 더욱 어려울 것이다. 실제 99~131 m²(30평대)는 중산층이 폭넓게 거주함으로써 가장 많은 수의 아파트가 양산되는 면적대이므로 이 외에도 다양한 요구가 있을 수 있다 그 중 하나로 부부침실 후면배치와 자녀실 전면배치(약 30% 정도), 그리고 주방/식당과 자녀실의 위치를 바꾼 평면(약 25% 정도)도 요구하였다. 이상과 같이 99~131 m²에는 다른 면적대의 평면보다 훨씬 더 많은 요구가 있다.

(3) 132~164 m²(40평대): 실의 수는 4개를 우선적으로 하되 실 3개(약 15% 정도)도 고려해야 한다. 실의 크기는 현재의 부부침실과 부부욕실을 축소하는 대신 드레스룸의 확장을 요구하였다. 여기에서 실이 3개일 경우 이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며 더하여 제대로 계획된 드레스룸도 설치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4개일 경우에도 이는 99~131 m²(30평대)와는 달리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면적대이므로 거주자의 요구를 맞추어 줄 수 있을 것이다.

(4) 165~197 m²(50평대): 실의 수는 4개를 우선적으로 하되 실 3개(약 30% 정도)도 고려한다. 실의 크기는 역시 현재의 부부침실과 부부욕실을 축소하고 드레스룸을 확장해 달라는 강한 요구와 주방/식당의 확장도 요구하였다. 이들 요구는 비교적 단순하여 거주자들이 요구한대로 조

정이 가능 할 것이다. 특히 실이 3개인 경우에는 여기에 더하여 훌륭하게 계획된 드레스룸의 제공도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여기에서 한 가지 132~164 m²(40평대)와 다른 것은 실2의 확장요구가 거의 없다는 것으로 결국 <표 6>의 13.6 m²(4.1평)가 실2의 적정 면적이라 할 수 있다.

(5) 198 m²(60평) 이상: 실의 수는 4개를 우선적으로 하되 3개(약 25% 정도)와 5개(약 15% 정도)도 고려해야 한다. 실의 크기는 여전히 부부침실과 부부욕실을 축소하는 대신 드레스룸을 확장해 달라는 비교적 강하면서도 단순한 요구가 있었다. 이 면적대에서는 실이 몇 개이든 각 실마다 비교적 넉넉한 면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거주자의 요구는 쉽게 조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이다. 한편 여기에서 실이 3개만 필요하다는 요구는 결국 가족 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이러한 요구를 하는 거주자들에게는 각 실의 크기를 넉넉하게 배분하고 특히 세밀한 수납장이 구비된 충분한 크기의 드레스룸을 마련해 주며 또 여유가 있다면 실2에도 드레스룸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6) 본 연구에서는 이 외에 부부침실과 자녀실을 선정, 거주자들의 가구배치에 따른 출입문과 창문 위치의 요구를 알아보았다. 먼저 부부침실에서 거주자들은 출입문과 창문의 ‘ㄱ’자 배치보다는 마주보는 배치와 출입문이 침대에서 가장 먼 쪽에 위치하도록 요구하였다. 자녀실은 출입문과 창문이 마주보고 침대와 책상은 창문 양쪽 벽면에, 그리고 출입문은 침대와 가장 먼 쪽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구는 평면계획 시 조금만 신중하면 거주자들이 편하고 안락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요소이다.

이상과 같이 규모별 각 실의 거주자 요구를 제시하였으며 위의 결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파트의 면적이 클수록 실의 수가 많아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66~98 m²(20평대)의 2~3개를 제외한 모든 면적대에서 요구하는 기본 방의 수는 3개~4개라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아파트의 규모가 커질수록 가족의 수도 많아지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현재의 거의 고정화된 아파트 규모별 실의 수(66~98 m²-20평대: 2~3개, 99~131 m²-30평대: 3~4개, 132~164 m²-40평대: 4개, 165~197 m²-50평대: 4개~5개, 198 m²-60평 이상: 5개)는 중,소형 면적대인 66~131 m²(20~30평대)에는 별 변동 사항이 없으나 132 m²(40평) 이상 모든 면적대에서는 다양한 거주자의 요구에 따라 실의 개수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실의 크기로 부부침실이나 부부욕실을 축소하고 대신 확장하고자 하는 실은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그 첫째가 부부를 위한 드레스룸의 확장이고 둘째가 부부 보다는 가족 전체를 위한 공동공간의 확장, 그리고 실2의 확장이었다. 이들 실크기의 조정은 66~98 m²(20평대)와 99~131 m²(30평대)에서는 좁은 면적에 비해 다양한 요구가 많아 이를 만족시키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거주자의 요구대로 부부침실과 부부욕실을 약간씩 축소하고 필요한 공간을 약간씩 확장하는 소

극적인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앞으로 이 두 면적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연구를 통해 적극적인 공간 조정을 시도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반하여 132 m²(40평) 이상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면적대이므로 거주자의 요구를 맞추어 줄 수 있을 것이며 특히 165 m²(50평) 이상은 넉넉한 면적이면서 거주자의 요구도 단순하여 그 해결 방법에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비교적 넉넉한 계층이 선택하는 면적대이므로 드레스룸에 수납하고자 하는 의류 및 용품의 종류와 양을 자세히 조사한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실제 드레스룸의 적정 크기와 붙박이장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차후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아파트 건설사에서는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아파트 규모별 계획의 초기단계부터 단위평면계획, 그리고 실의 수, 각 실의 크기와 위치, 창문이나 문의 위치까지 각 부분을 계획할 때 참고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며 본 연구의 의의도 여기에 있다.

넷째, 본 연구의 한계점은 변수로 규모만을 다루었다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거주자의 가족 수나 가족주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아파트의 규모가 가장 큰 선택 요건이라는 견해에 따라 다른 변수는 제외하고 규모만을 중심으로 하였다. 따라서 일반적인 설문조사와는 달리 빈도, 백분율, 평균 등의 기술통계만을 사용함으로써 연구의 전체적 흐름이 단순하게 보일 수 있으나 얻어진 결과는 평면계획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실용적 결과라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1. 강형구 외(2005), 아파트 안방의 가구와 주생활 행위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16(3), 1-7.
2. 김상희 · 안주영(2002), 경남지역 전면 3칸형 아파트의 공간이용 행태 및 거주후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13(4), 1-10.
3. 김석경 · 임미숙(2005), 맞벌이 가족의 주생활 특성 및 주 요구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1(10), 3-12.
4. 김세진 외(2003), 도시 생활 실태를 반영한 아파트 주거 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계획계, 23(1), 59-62.
5. 김수진 · 이영수(2004), 아파트 거주자의 주생활양식에 따른 단위평면 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

- 집, 22, 102-109.
6. 박인석 · 김진환(2002), 안방 후면배치 아파트평면의 거주자 반응 평가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8(2), 39-50.
7. 박소윤 외(2005), 공동주택의 드레스룸 공간계획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05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44-47.
8. 박수빈 외(2003), 아파트 평면유형 및 가구특성에 따른 공간사용방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12), 871-96.
9. 박수빈 외(2005), 아파트 평면유형에 따른 부부 전용공간 사용행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계획계, 23(2), 11-14.
10. 박혜선(2003), 중소형 아파트의 거주 후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 주거학회 논문집, 14(4), 121-130.
11. 오찬욱(2003), 아파트 거주자의 평면유형별 평면구성에 대한 요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11), 21-31.
12. 오찬욱 외(2004), 아파트 거주자의 평면유형별 평면구성에 대한 요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11), 21-31.
13. 양세화 외(2006) 아파트 공간규모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17(4), 93-100.
14. 오혜경(1994), 주택의 이동실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0(7), 91-99.
15. 이경아 외(2005), 공동주택 단위평면의 실별 면적 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 05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52-55.
16. 이복희 외(1999), 아파트 거주자들의 안방 사용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10(2), 185-193.
17. 이연숙 외(2001), 한국 3침실형 아파트의 가구보유 패턴,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11, 92-99.
18. 이종근(2002) 아파트 거주자의 공간 요구도 분석에 의한 단위 평면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수도권 사례의 거주 후 평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19. 조성희 · 박수빈(2000), 아파트 단위평면계획의 다양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16(6), 11-20.
20. 조성희 · 박수빈(2001), 아파트 단위평면계획을 위한 주요 구 모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17(9), 109-119.
21. 주서령 · 박은영(1999), 아파트 부부 전용공간의 유형과 규모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10(4), 92-100.
22. 최윤정 · 김민정(2003), 자녀양육기 맞벌이 가구를 위한 아파트 단위평면 계획 연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14(6), 23-32.
23. 최정원 외(2006), 거주자 평가(POE)를 통한 아파트 주호 실내 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5(6), 159-171.
24. 황연숙 · 오찬욱(1997), 아동실의 실내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11, 64-69.

접수일(2008. 6. 27)
 수정일(1차: 2008. 7. 23, 2차: 9. 4, 3차: 9. 30)
 게재확정일(2008. 10. 1)